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 출마 포부서

저는 43번 프로로서 그동안 충분한 혜택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개인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협회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만을 위해 제 소명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저는 3가지 비전을 품고, 입후보하셨습니다. 회원들의 ‘공정한 공존’, ‘행복한 소통’, ‘성장하는 미래’입니다. .

제가 KLPGA 임원이 되면, 적절하지 못한 행동과 처사에 책임을 묻고, 기꺼이 책임질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공정한 공존’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드백을 달게 받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습니다.

회원들의 ‘행복한 소통’ 위해 매년 ‘대의원 행복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세대 간 격차를 좁히는 ‘통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저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긍정적이고 행복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역시, ‘성장하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첫걸음으로, 회원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만들 것입니다

둘째,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골프전문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전략적 마케팅으로 우리 지도자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협회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품격을 갖춘 후배 프로들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잠재력과 영향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돕겠습니다.

‘사람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 분야의 인사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협회를 위해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솔선 수범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9 일

성 명 : 이 기 화

